metro

메트로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6일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관계자가 다음 로고 앞에서 카카오톡 로고를 들어보이는 모습 /뉴시스

'다음카카오' 10월에 '한 몸' 된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통합 기자회견에서 최세훈(왼쪽)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와 이석우 카카오 대표가 포옹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가총액 3조 넘어… IT기업 최대의 빅딜
생존위한 전략 합병, 네이버 독주 견제 관심

모바일에 온라인은 집어삼켰다

포털 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26일 통합 법인 출범을 밝혔다. <관련기사 8면>

합병은 기준 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대 1.556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양사 합병으로 다음의 최대주주인 이재웅 창업자의 주식지분은 4.1%로 떨어지지만 김범수 의장은 44%(케이큐브홀딩스 지분 포함)로 1대 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의 우회상장을 위해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는 모양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국내 IT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3조원이 넘고 직원수만 해도 3200명에 달한다.

양사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다음카카오 '네이버 잡아라'

이번 빅딜은 국내 1위 인터넷기업 네이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통합법인은 모바일을 비롯해 IT 전 영역을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사업에 방점을 찍었지만 안방에서의 영향력을 더 이상 잃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통상 포털 업계는 네이버와 다음의 점유율을 75%와 15%로 추산하고 있다. 양사의 점유율 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만 해도 다음은 매출 1270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6380억원, 영업이익 1898억원을 올린 네이버에 무릎을 꿇었다.

카카오의 어깨값 역시 예전같지 않다. 지난 3월 기준 카카오톡의 글로벌 가입자 수는 1억 4000만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억명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급격히 식었다.

네이버의 '라인'이 지난달 글로벌 4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오는 9월이면 5억명 돌파가 유력한 라인이 해외 유명세를 앞세워 국내 카톡 유저를 공략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카톡이 해외 시장에서 부진한 것도 이번 빅딜과 연관이 있다. 카톡은 지난해 일본에서 10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년 사이 200억원을 날렸다.

한마디로 글로벌 사업도 좋지만 그 전에 네이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모바일 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카톡과 유사한 '마이피플' 앱 서비스 중이지만 사실상 접어야 할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모바일검색 광고 분야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어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에 의지할 수 있다.

카카오 역시 모바일은 평정했지만 기세가 사그라드는 중인 만큼 투자 자금이 필요했고 이번 합병으로 우회상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전망이다.

규모나 자금 여력에서 여전히 열세이지만 다음이라는 우군을 얻은 카톡은 네이버의 '라인', '페이스북의 왓츠앱' 등 트렌드의 취젓과 싸워볼 수 있는 힘을 얻은 셈이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홍역 환자 급증 비상

정부는 홍역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홍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 홍역환자가 지난 22일 기준 22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107명)의 두 배를 넘어섬에 따라 보건당국과 학교가 협력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홍역환자중 초·중·고와 대학생 환자가 32%(72명)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선 학교 내 홍역 의심 환자가 확인되면 신속한 격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 전파 경로 및 노출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추가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인근 학교, 학원,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학교 구성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접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홍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을 받은 경우 학교 학원 등교 중지와 격리 지침(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추가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카톡증권' 부작용 대비해야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의 운영업체인 카카오의 파죽지세가 놀랍다.

카톡을 기반으로 한 증권 애플리케이션, 일명 '카톡증권'이란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놓더니 26일엔 국내 포털사이트 업계 2위인 다음과의 합병 소식을 알렸다.

카톡증권은 카톡 친구를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 종목을 공유하고 실시간 종목 시세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다음 달부터는 개별 증권사들이 카톡증권 앱을 통해 실제 주식 거래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도 개시될 예정이다.

게다가 카카오가 오는 10월 다음에 흡수합병 되면 시가총액만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인터넷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사회에서 주식시장과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두 통로를 거머쥔 카톡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성장세 뒤에 가려진 잠재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본인만 해도 매일 카톡으로 오가는 메시지 중엔 증권가 찌라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카톡의 이런 특성이 제대로 필터링되지 않는다면 향후 카톡증권이 자칫 잘못된 루머와 작전세력의 또 다른 놀이터로 전락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또 계정을 도용해 카톡 친구를 빙자한 사기나 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피싱 등이 증권 서비스로 파고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재산 11억 사회환원"

안대희 총리 내정자 전관예우 해명…"저부터 개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입장' 에서 "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원 배경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저의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답부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총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가운데 6억여원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여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 4억7000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전관예우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게 한 전관예우의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총리 후보자 지명이 재고돼야 한다"고 말해 혹독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시각 장애인 체험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남산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춘계 걷기대회에 참석해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

지난 15년간 현대증권 강성 노조를 이끌어 온 민경윤 위원장 시대가 저물었다.

현대증권은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난 22일 판정에 따라 민 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위원장 박길상)는 민 전 위원장 등이 지난달 17일 신청한 재심 판정문에서 "민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함,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중노위는 민 전 위원장이 회사 매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1995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중노위는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며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정했다.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민 전 위원장은 2000년 1월 이래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과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을 4번 연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1일 경영진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로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세월호' 국조 계획서 합의 불발

여야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수석 회동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hj@

노숙자에 호의 베풀다 소지품까지 몽땅 털려

노숙생활을 한 적 있는 자의교포 사업가 김모(42)씨가 노숙자 노모(49)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소지품을 몽땅 털렸다.

노씨는 24일 새벽 3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김씨가 잠든 때를 노려 의류·신발 등 249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로 달아나려고 사외버스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다 잠이 든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김기자 yd@

고양터미널 화재 6명 사망

40여명 부상… 소방본부 사망자 수 수차례 정정 '혼란'

26일 오전 9시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층 식당코너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당했다.

불은 종합터미널 지하 1층 음식점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은 131명의 소방인력과 40대의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 발생 27분만인 오전 9시29분께 진화됐지만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는 상황실과 현장에서 파악한 사망자 수가 달라 재차 정정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오전 11시 20분께 종합터미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10분 뒤 경기 일산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를 6명으로 발표했다. 20여 분 뒤엔 일산백병원으로 이송된 1명이 같은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며 사망자 수를 5명으로 또 줄여 발표했다.

그러나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은 1명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 화재로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은 오전 10시 21분을 기점으로 정상화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화재 현장감식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에서 검찰과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팽목항 30일부터 개방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40일 이상 일반에 폐쇄됐던 팽목항이 이달 말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6일 오전 "진도군 조도면 섬 주민들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르면 30일부터 일반인들의 팽목항 이용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급차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 어민 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망항 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윤다혜기자

유병언 현상금 5억에 신고 '껑충'

검·경 절반씩 부담하기로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들에 대한 제보가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원 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김선훈기자

'다판다' 대표 내달 10일 첫 재판

주 1차례 이상 집중심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송 대표를 시작으로 유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6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유씨 및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 총 5억9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훈기자

청년 희망가게 100호점 돌파

부산은행이 선정, 지원하는 청년 희망가게가 사업개시 10개월만에 100호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성세환 BS금융 회장(왼쪽)이 정영근 크레페 이인스 대표와 청년 희망가게 100호점 선정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어음부도율 연중 최저

지난달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은 3월과 같은 0.11%로 연중 최저치를 유지했다.

26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어음부도율은 1월 0.21%를 기록한 이후 2월 0.13%, 3월 0.11%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달 부산의 어음부도율 0.11%는 전국 평균 0.22%나 지방평균 0.74%, 광역시 평균 0.15% 등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 대학 전쟁책임 고백 줄잇다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후쿠오카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본 대학 내에서 전쟁책임과 죄책고백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내 정치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숙제이자 아시아의 난제를 일본 지식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부산을 축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동북아시아문화학회는 지난 24일 일본 후쿠오카 세이난가쿠인대학에서 후쿠오카 동아시아학회와 공동으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교류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세이난학원대학 명예고문이자 규슈대학 명예교수인 니시라조노 요시키([illegible]) 교수는 '일본대학에 있어서 전쟁책임과 죄책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 아오야마학원대학을 비롯, 메이지학원대학, 세이난학원대학 등 3개 대학의 전쟁책임과 죄책고백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강연에 따르면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이 1941년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돼 각지에서 일본의 패배가 잇따르자 일본은 병력증강을 위해 1943년 10월 학도동원령을 내린다.

이에 각 대학 고교 전문학교 등의 학생들이 전쟁에 동원된다.

아오야마학원대학은 1993년 학도출진 50주년을 계기로 '아오야마학원대학 프로젝트 95'를 결성해 학도진출현황, 대학의 전쟁책임을 묻는 교수와 학생들의 증언 등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전쟁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고뇌와 가해자로서의 전쟁책임 의식이 담겨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야마미야 츠요시([illegible]) 교수는 "대학은 과거를 반성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본침략전쟁에 희생된 아시아인들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주장했다.

메이지학원대학도 1995년 메이지학원대학 21세기포럼 패전 50주년 사업위원회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 전쟁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쟁이후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않았던 것을 전후 책임으로 표명하고 죄책고백과 사죄를 표명했다.

당시 이 대학 나카야마 히로마사(中山弘正) 원장은 "전쟁 동원이 국가권력에 강요당했다는 사실과 학교가 전쟁에 협력한 결과 학생들을 전장에 보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신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이난학원대학은 2013년 학도출진 70년을 맞아 세이난학원대학과 전쟁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도출진 전사자 추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마리(伊??) 교장은 "우리는 전쟁의 교전국에 식민지 지배를 했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막대한 손害과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쟁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간접적 동원한 책임을 인정하고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란 점을 비판하지 않고 학생을 학교의 이름으로 전장에 보낸 것 △그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동북·동남아시아 국가, 호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등 6개 항목에 걸쳐 대학의 죄책을 표명했다.

/임하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부산대,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부산대학교가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부산광역시지역전략산업 맞춤형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부산대는 융합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 '기계산업 부품설계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며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단은 향후 기계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대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습 30%를 포함한 2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실습 인턴 및 산업체 홍보, 취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 프로젝트 발표 등 실전력으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부산지역 대학의 미취업 대졸(예정)자 35명 이상으로, 30명 이상 수료 및 20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하균기자

당도 높은 함안노을멜론 맛보세요 경남 함안군이 이른바 대도 가업로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함안노을멜론. 함안노을멜론은 검은색 껍질에 그물 모양이 새겨져 있고 과육은 저녁노을을 연상케하는 오렌지색을 띠고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부·울·경 상장기업 15% 작년 기부금 '0'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상장기업 가운데 15%가 지난해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12월 결산 상장기업 169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143개사가 959억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기부금 규모 1474억원과 비교해 515억원(35%) 줄어든 것이다.

또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26개사는 지난해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상장기업이 지난해 183억원의 기부금을 내 2012년의 74억원보다 109억원(147.3%) 증가했다.

경남은 412억원으로 전년대비 49억원(10.7%) 늘었다.

그러나 울산은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958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664억원(64.7%) 줄었다.

이처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상장기업의 전체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내수침체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실적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울산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나빠지면서 기부금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부금 규모 상위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이 286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두산중공업 146억9200만원, S&T모티브 100억6200만원, S&T중공업 100억5400만원, 삼성테크윈 46억7400만원 등이다.

"부산판 도가니 사건 강제추행 없었다"

검, 맹학교 교사 무혐의 결정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에서 실제 보다 부풀려진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서병수 측근 원전비리 무소속 오거돈 논문표절 의혹 날선 공방

시장 선거 비방전 '얼룩'

부산시장 선거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의 측근 원전비리,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측의 끝없는 공방이 계속된다면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주말 동안 3~4건의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 공세를 폈다. 이어 서 후보 캠프는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전용성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말은 더듬지만 양심은 더듬지 않는다'고 말한 오 후보가 남의 논문을 더듬었다가 들통났다"라며 "남의 논문을 베끼고 학위 기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오 후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 후보의 논문 표절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보도를 인용, "오 후보의 표절행위는 관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복사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오 후보가 일말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있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장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서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동아대 측에도 대학 자원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위를 즉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서병수 후보 측이 측근의 원전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물타기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자당 시장후보의 비리 관련성에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쓰레기보다 못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죄 및 명예훼손)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공당이라면 상대 후보의 명예에 관련된 일에는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면서 "자질도 없고, 공신력도 없는 논문표절 전문가집단이라 할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새누리당과 서병수 후보 측은 앵무새처럼 옮기고 있다. 이는 공당의 자격을 잃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연이은 비방·폭로전 속에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 후보 측이 TV토론에서 서 후보 측근의 원전비리 문제를 제기한 후 3~4일간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고 주말부터는 오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문제로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정가의 한 인사는 "논문표절 문제는 그 진위가 결론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사안이고, 서 후보의 원전비리 관련 문제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다"며 "양측이 결론이 없는 공방을 계속 벌인다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25일 부산시장 후보인 새누리당 서병수(왼쪽)씨와 무소속 오거돈(오른쪽)씨가 남구 대연초등학교에서 열린 자전거페스티벌에 참석, 시민과 악수하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곳 행정처분

부산시는 부산공정거래사무소와 한국소비자원부산본부 합동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무규정 준수여부, 금지규정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위반업체는 △예치기관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1개 업체(등록취소) △영업기 경영난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1개 업체(직권말소) △자진폐업 신고한 2개 업체(폐업) △등록변경신고(소재지,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2개 업체(과태료)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했거나 환급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 미지급한 5개 업체(시정권고)이다.

시는 이들 업체가 기간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시 적극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 위반 사항이 적발 됐을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환급금 지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혁균기자

온 종합병원, 광복회 회원에 빈소사용료 지원

부산 온 종합병원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복회 부산지부 회원들에게 장례식장을 이용시 빈소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온 종합병원은 지난 5월초 부산 중앙공원 내 부산광복기념관 1층에 위치한 광복회 부산지부와 장례식장 지원 협약을 맺었다.

온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그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무연고자 등에게 빈소이용료 지원 등의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번 광복회 협약을 통해 지역의 애국지사들에게도 다양한 장례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온 종합병원은 회원들에게 30평형 빈소이용료는 전액 무료 지원하며, 기타 빈소 사용료의 경우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장례용품 구매 시 20% 감면, 도우미 2명 무료 지원, 부산 전 지역 운구 무료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온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부산시민들에게 애국심 함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혁균기자

감천문화마을 빈집 창작공간 변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감천문화마을이 한층 더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 3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 등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도 5월 현재까지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했다.

그러나 문화마을을 대변하는 특화시설이 없어 관광객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도 210여 동의 빈집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씨 등이 참여하는 '빈집 레지던시' 사업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1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문화마을내의 빈집 6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입주작가가 상주해 창작활동과 방문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이다.

시는 오는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5년 5월 준공 및 상주작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 리모델링에는 △'빈집의 미학'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승효상(이로재 대표)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김인철(아르키움 대표) △프란시스코 로 사닌(francisco sanin 美시라큐스 대학 교수) 등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 이들의 명성만으로도 감천문화마을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감천문화마을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혁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2010.35 (-6.82)	548.83 (-0.87)

금리	환율
2.83 (변동없음)	1023.50 (-2.00)

뉴스&뉴스

흑미수박으로 더위 이겨요 롯데마트가 26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점 과일매장에서 잘 익은 흑미 수박을 판매 하는 프라임 흑미 수박 17kg 미만 국내산을 통 통 1만4800원에 팔고 있다 /연합뉴스

세 집 중 하나, 집전화 없어

● 세 집 중 한 집이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KISDI 스탯 리포트 유무선전화서비스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 분석 결과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구는 2011년 전체의 21.63%에서 2013년 32.63%로 11%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집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56.99%를 기록,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세종시의 경우 10가구 중 6가구는 집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기자 ry34@

저축은행 대출 금리체계 개선

●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대출금리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고객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개인신용 대출에 우선 적용되고, 기업 대출과 담보 대출은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송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월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현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31 3
부산광고문의 051)550-2100
독자센터 02)721-9865
2002년 5월 1일 창간 서울특별시 서울 가00206

김범수 의장, 제갈공명 지략 발휘할까

Issue&View 다음카카오 통합법인 출범

/하국경기자 kmkor@metroseoul.co.kr

'절대 강자' 네이버와 정면대결 주목 합병 시너지 효과는 "기대반 우려반"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제갈공명과 주유의 지략이 한국 포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26일 합병을 선언하고 '절대강자'인 네이버에 출사표를 던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대일 맞대결에서는 네이버에 현격히 밀리지만 연합전선을 편다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상승 30% 예상도

이번 합병으로 다음은 고전하고 있는 모바일 부문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이버 '라인'에 밀린 메신저 시장에서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앞세워 전면 승부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쌓아온 사업 운영 경험을 모바일에서도 펼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았던 자금문제를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C 기반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이날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 웹페이지를 출시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한승혁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만 고려해도 합병 후 최소 30% 이상의 주가상승 요인이 있다"며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병으로 탄생하는 '다음카카오'는 단숨에 시가총액 규모(카카오는 장외거래 금액 기준)가 3조원을 넘는 거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등극할 전망이다. 이는 셀트리온(시가총액 5조6140억원)에 이은 코스닥시장 2위 규모에 해당한다.

◆게임 플랫폼 시너지 기대 힘들어

다음과 카카오 연합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삼국지에서도 결국 조조의 위나라가 사실상 삼국을 통일했다. 특히 게임 플랫폼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를 자회사로 둔 다음이 게임 플랫폼을 가진 카카오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게임업체들이 많다"며 "특히 카카오가 최근 게임업체들과 마케팅 가격 정책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는 모양새라는 점도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음의 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창업자)의 지분율은 14.1%에 불과하지만 '다음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30%가 넘는 지분율로 대주주가 된다. 그간 사실상의 오너가 없던 다음이 이번 합병으로 실질적인 오너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내 1위 포털인 이해진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세계적인 IT업체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지만 오히려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통합법인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카리스마를 보이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젠 지문으로 인·적성 검사를?"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청년일자리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지문을 이용한 적성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안한 인생2막, "있을 때 아끼자"

KDI "전 연령층 소비 줄어"

모든 연령층이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 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근로 가능 기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 전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50대 이상 고령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3년 사이 50대의 평균소비성향은 0.75에서 0.71로, 60대는 0.78에서 0.70으로, 70대는 0.94에서 0.76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20대는 0.75에서 0.74로, 30대는 0.74에서 0.71로, 40대는 0.80에서 0.77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이는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가능 기간은 늘지 않아 노후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특한 W자 소비패턴

연령별 평균소비성향도 W자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이같은 평균소비성향 형태의 변화는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2003~2013년 평균을 냈을 때 한국의 40대는 처분가능소득의 약 14%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1%)의 7배에 달한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대부분 연령계층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교육비 지출이 높았던 현 30~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국경기자

시장점유율 20% 돌파

LG유플 창사 이래 최초

LG유플러스가 199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20%를 돌파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 3~4월 홀로 영업을 전개했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4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13%, KT 29.84%, LG유플러스 20.02% 순이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 1104만8233명으로 전체 가입자(5518만6569명)의 5분의1 규모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가입자 수 19.85%를 달성하며 고점을 찍은 후 경쟁사들의 견제 속에 20%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선전은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정부의 순차적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30% 회복에 실패했다. KT의 4월 가입자 수는 1646만7177명(29.84%)으로 지난달(29.86%)에 이어 두달 연속 시장점유율 30% 회복에 실패했다. KT는 45일의 영업정지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766만4846명(50.13%)으로 전달(50.42%)보다 시장점유율이 다소 줄었으나 시장점유율 50% 방어에는 성공했다.

/서승희기자 sh@

은행 당국 제재 앞두고 술렁

부당대출·직원비리 등 금감원 심의위 개최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잔인한 6월'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두 번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제재심의위를 12일과 26일 두 번 개최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사안부터 신속히 제재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특검 대상이 된 사안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6월 제재심의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담이자 환급액 예유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았다. 최근 국민은행은 주전산거래시스템 교체를 두고 심각한 내홍에 휘싸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국민은행의 특검 결과들을 한꺼번에 제재심의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미술품 구입, 거액의 특별 퇴직금과 고문료 등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김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50명에게 5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실적에 따른 것으로, 김 행장은 78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해 금감원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 KT ENS 협력업체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여신심사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역시 이달 제재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를 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심의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문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블루라벨로 환경 지켜요' 동아오츠카가 포카리스웨트 판매수량 70억캔을 돌파한 기념해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세트병 자원순환 동참 프로젝트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블루라벨 캠페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전자화폐의 '몰락'

9년새 10분의 1토막

전자화폐가 새로운 결제 수단에 밀려 그 위상이 추락했다. 이용 실적은 9년새 10분의 1토막이 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화폐는 연간 1420만건, 190억원 어치가 이용돼 전년보다 각각 43.2%와 37.0% 감소했다. 이용 건수는 연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1억5817만건)과 비교하면 91.0% 급감한 수준이다. 이용액도 2004년에는 1246억원에 달한 만큼 9년 사이에 84.7% 감소했다.

전자화폐는 2000년 국내 도입 당시에는 화폐수요를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으면서 몬덱스 등 5종류나 출시됐다.

그러나 교통카드가 탑재된 신용카드와 선불 교통카드에 밀리면서 2007년을 정점으로 이용이 줄기 시작했다. 현재는 K-캐시와 마이비점도만 제대로 명맥을 잇고 있으며 비자캐시는 기존 발행분이 소진되는 정도로만 이용 실적을 내고 있다.

올해는 전자화폐의 위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인 지난 2월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전자화폐가 아예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군 부대나 대학 구내 등 군인이나 학생들의 수요는 아직 계속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무시무시한 좀비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기후변화 범죄산업전'에 마련된 도시생존체험 부스에서 관계자가 재난, 전쟁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하게끔 차량을 개조한 일명 '좀비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엔터주 배당은 YG엔터 '유일' 왜?

불안정한 수익성이 원인으로 지적

최근 주주배당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주 관련주 중에서 배당을 시행하는 곳은 YG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유일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2년간 회계연도에 각각 주당 300원씩의 현금배당을 시행했다.

현금배당성향은 2012회계연도 16.5%에서 2013회계연도에 20.2%로 3.7%포인트 높아졌다. 현금배당 수익률은 보통주당 0.5%에서 0.6%로 소폭 올라갔다.

YG엔터는 2011회계연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 배당을 시행했다.

또 엔터주 가운데 지난해 유일하게 배당을 했다.

엔터주 중에서 YG엔터 외에 배당을 한 적이 있는 곳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로엔엔터는 2011~2012회계연도에 각각 주당 170원, 189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했으나 지난해에는 배당이 없었으며 나머지 엔터주들도 배당이 전무했다.

YG엔터와 함께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엔터테인먼트와 JYP는 물론, 최근 드라마 등 인기가 치솟는 IHQ, 키이스트, 웰메이드예당 등은 최근 3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아예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이는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 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분기당 배당금정책을 주요하게 발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디즈니는 지난해 배당금을 주당 86센트로 종전보다 15% 올렸고 타임워너는 다음달 중으로 주당 31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지난해 배당 수익률은 각각 1.23%, 1.96%이다.

이는 미국 상장사 평균인 1.9%와 비슷하거나 소폭 밑돈 수준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배당에 인색한 국내 상장사들의 특성과 함께 엔터기업들의 불안정한 수익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은 이익이 나야 할 수 있는데 아직 엔터주의 이익 규모는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80세까지 가입 연령확대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다.

맥주 빨리 차갑게 만드는 방법은?

짠순이 주부 경제학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다. 이럴 때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여름철 무더위를 날리기에 충분하다.

맥주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최적의 온도는 4도에서 8도 라고 한다. 냉장고에서 보통 세시간 보관했을 때가 맛이 가장 좋다. 거품도 중요한데, 거품은 탄산가스가 새 나오는 것을 막아 청량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다. 하얀 거품이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함의 비밀! 그렇다면 미지근한 맥주, 금방 차갑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냉동실에 맥주병을 넣어도 겉면 차갑지 속까지 차갑지는 않다. 겉은 차가운 것 같은데 따개를 따 잔에 붓고 보면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 이럴 땐 얼음은 잘게 갈아 수건에 적신 다음 맥주병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쏘이면 금방 차가워진다. 캔 음료도 같은 방법으로 금방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얼음을 잘게 갈 수 없다면 얼음통을 깨고 그 속에 맥주병을 파묻으면 된다. 이 맥주병을 손가락으로 몇 분 돌리면 속까지 시원해진다.

맥주병과 정잔을 함께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키친타올이나 휴지을 물에 적신 후 맥주에 말아준다. 그런 다음 냉동실에 넣어두면 5분 안에 맥주가 차가워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 냉동실에 오래 넣어두면 병이나 캔이 폭발 할 수 있다.

맥주병과 얼음의 '믹스' 방법은 어떨까. 먼저 맥주, 물, 소금, 얼음, 넓적한 통을 준비하자. 통에 물을 붓고 준비한 얼음을 가득 넣어둔다. 맥주가 충분히 잠길만큼 준비하면 된다. 그 다음 소금을 맥주와 얼음이 담긴 통에 고루고루 잘 뿌려주면 끝! 소금은 얼음을 빨리 녹게 하는 능력이 있다. 빠른 속도로 녹는 얼음이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결국 맥주의 온도를 낮춰 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혼부부 똑부러지게 합치려면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신혼부부 경제생활 똑부러지게 합치는 방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제희원 선임조사역이 미혼 남녀가 결혼 후 각자의 경제생활을 하나로 통합할 때 고려할 사항을 짚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이 발간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 신혼기 및 자녀 출산 기편'을 참고하면 됩니다.

미혼 남녀는 수십년 동안 서로 다른 소득과 소비 패턴,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유념해야 합니다.

1. 공개하기

배우자에게 자신의 월급통장과 함께 한달 소비 규모, 대출금 유무, 할부금 잔액, 정기예금 액수, 부동산 유무 등을 세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지출·부채·자산 등 항목별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먼저 ▲수입에는 월급과 사업수익,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기재하고 ▲지출엔 부채상환금, 월세, 보험료 등 매달 일정한 고정지출과 식비, 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정치 않은 변동지출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또 ▲부채엔 갚아야 하는 기한이 1년 미만인 단기부채와 1년 이상인 장기부채를 분류해 적어주고 ▲자산엔 은행 수시입출금, 예금·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과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 등을 기재합니다.

2. 공감하기

서로의 경제상황을 파악했다면 앞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공감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수입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같은 수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 방법과 출산·양육에의 지출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측면에선 부부의 씀씀이가 가정의 수입에 비교해 적절한 수준인지 의논해야 합니다. 절약해야 한다면 일상에서 줄이기 쉬운 변동지출을 중심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부채의 경우 서로의 대출 원인이나 매달 이자 액수,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비용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무조건 서둘러 갚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측면에서 현재 부부가 보유한 금융상품 규모를 파악하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계획하기

일생의 5단계를 나눠 시기별로 인생 설계도를 그려봅니다.

가족생활을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 성년기, 자녀 독립 및 은퇴기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재무목표와 목표자금, 목표기한을 1~3순위로 매기고 계속 이를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하희수 김현정기자 h.kim1@

같은 지역·다른 결과… 분양시장 양극화

산업단지, 교통·편의시설 등 변수로 떠올라 수요자 거주하기 편한 아파트로 쏠림 현상

잘 나가던 분양시장도 최근 들어 달기가 한 풀 꺾이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급되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좋은 청약 성적을 올리는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은 되는 곳만 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미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에 선보인 '소사벌지구 우미린 센트럴파크'는 순위 내 평균 2.01대 1로 마감된 후 계약 일주일 만에 90%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반도건설이 견본주택을 오픈한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역시 3일간 1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반해 4월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한 '평택 청북 한양수자인'은 0.60대 1로 순위 내 미달을 보인데 이어 현재 계약률도 30%선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같은 평택 안에서도 청약 결과가 갈리게 된 데는 소사벌지구가 기존 평택의 중심지인 비전동과 인접한 데다 KTX 지제역(2015년 개통 예정)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고덕산업단지와 5km 거리에 불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기 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6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신안인스빌 리베라'의 경우 하루 평균 40~50통의 문의전화가 오는 등 벌써부터 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게 신안 측의 설명이다.

실제 앞서 지난 2월 '신안인스빌 리베라' 바로 옆에서 분양된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계약 나흘 만에 100% 분양이 완료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례에서도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와 '위례 사랑으로' 등은 여전히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위례신도시의 분양 성패는 유연림과 트랜짓몰의 연접성에 따라 달라졌다. 유연림·트랜짓몰 안으로 교통망과 편의시설이 집중되면서 이들 구역 안에 있는 단지들은 모두 완판 행진을 벌였지만 밖에 있는 곳들 대부분은 분양에 실패했다.

동탄2신도시는 시범단지에 따라 온도차가 나타나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교통·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시범단지 안 또는 인접해 있는 단지로 쏠림현상이 뚜렷하다.

지난달 초 시범단지와 인접한 곳에서 분양된 '동탄2 신안인스빌리베라2차'만 해도 1순위에서 4.1대 1로 순위 마감을 기록한 반면 이달 중순에 분양한 '금강펜테리움'은 순위 내 마감을 이루지 못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동산시장에 회복은 됐다지만 수요자들이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으로만 몰리고 있다"며 "시세차익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시대도 지났을뿐더러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 편한 곳을 선택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psol620@metroseoul.co.kr

지난 주말 반도건설이 경기 소사벌지구에서 개관한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에 3일간 1만6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배곧누리 한라비발디 문화관, 강좌 성황

한라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개발현황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오픈한 '배곧누리 한라비발디 문화관'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문화관에서는 오픈 첫 날인 4월 28일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오은영 원장의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가 성공한다'라는 강좌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매주 화·목요일에는 학부모들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한 강연 프로그램이,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실시된 강좌들은 교육을 테마로 조성되는 배곧신도시의 취지와 부합하는 교육 관련 강좌들이 많이 진행됐다. 정해진 좌석 인원을 웃도는 수강생이 몰려 지정된 좌석보다 의자를 더 늘려 인원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달 남은 강좌는 27일 김혜남 강사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와 29일 김미경 강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침묵이 금이라니…'가 계획돼 있다.

6월에도 새로운 강좌들이 찾아온다. 주요 강의로는 12일 이병훈 강사의 '초등부터 시작하는 엄마표 진로 진학 학습법 로드맵 설계하기', 17일 '요리가 즐거워지는 주방 정리 비법' 등이 있다. 또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던 마술쇼와 연극 공연이 21일과 28일에 예정돼 있다.

강연은 전화 또는 문화관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문화관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에 마련돼 있다.

/박선옥기자

현대건설, 싱가포르 건설대상 2관왕 현대건설이 지난 22일 싱가포르 건설부(BCA)가 주관한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4'에서 CPA Projects(현장) 부문 대상과 QEA-Builders(건설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수도권 동북부 8500여 가구 쏟아진다

우회도로, 지하철 연장선 등 교통망 확충 기대

상반기 수도권 서남권 위주로 분양이 진행됐다면 하반기에는 동북권으로 그 축이 옮겨질 전망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수도권 동북지역에서 총 8497가구가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양주는 1142만㎡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신도시로 개발된다.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 진입로인 국도 3호선과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 교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올해 말 개통 목표다.

특히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에는 2020년 양주신도시와 서울 노원역을 오가는 BRT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 같은 호재에 힘입어 대우건설이 6월 초 A9블록에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8㎡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고 1862가구 대단지다.

남양주는 최근 지하철 4호선 연장선 진접선 개통이 확정되면서 재조명받는 모습이다. 또 별내신도시에는 2017년 이후 암사와 별내를 잇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LH가 별내신도시 A9블록과 A8-1블록에서 각각 463가구, 772가구로 이뤄진 국민임대아파트를 6월 공급한다.

의정부 역시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이다.

현재 LH가 의정부 민락2지구 B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812가구를 분양 중이다. 의정부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됐다.

/박선옥기자

6월 아파트 1만2734가구 분양

전월보다 30.7% 줄어

오는 6월 주요 대형 주택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전국 17곳에서 1만2000여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건설사가 17개 사업장에서 1만2734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의 1만8375가구에 비해 30.7% 줄어든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9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1632가구, 충남 1422가구, 부산 1282가구, 서울 1264가구, 대전 1132가구, 세종 608가구 등의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도급이 5210가구, 자체분양 4663가구, 재개발·재건축 조합물량 등이 2861가구로 집계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신규 분양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6·4 지방선거와 브라질 월드컵 개막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면서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보다 분양이 절반가량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김두래기자 kdr@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갈등 확산

해외선 권역내 대부분 면제…방통위 대책 마련 시급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가 지난 12일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2014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KBS와 MBC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22일 전달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일반적인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료 협상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전세계 축제를 방송하는 데 대해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업계는 현행 1가구 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지상파 업계가 재송신료 협상에 들어가는 유료방송 업체에 재송신료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 황당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료방송업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케이블TV나 위성TV, IPTV 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가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상파TV 직접 수신가구는 지난 2011년 5%, 지난해에는 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상파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료방송업계도 수익성은 위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같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공공서비스방송체제인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대다수 유럽 국가는 유료방송업계가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재송신할 때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상업방송체제 국가들 역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 유료방송 사업자의 권역 내 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상 면제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는 저작권법 상의 '서비스 지역 원칙', '이중 보상 방지' 등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재송신료도 미국은 0.5~1달러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의 0.4~0.8%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RPU 대비 9~13%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ARPU를 감안해 한국의 재송신료는 33~66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한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상위 4개 주요 방송사가 '연합협상 사전담합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역 방송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은 지상파 재전송에 대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했다. 이것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 간 공정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상파 방송이 공게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반면 국내는 사실상 첫따른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은 건 방통위 개입밖에 없다"며 "뭔가 적절한 대안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기자 lyd@metroseoul.co.kr

스노레퍼드 보드카 국내 출시 26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열린 슈퍼프리미엄 보드카 '스노레퍼드' 국내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보드카는 2001년 영국에서 첫 출시됐다. 가격은 병당 7만6000원. /연합뉴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제강 누계 1억 톤 돌파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전기로 단위공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강 누계 1억 톤을 돌파했다.

1953년 국내 최초의 철강회사로 출범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1956년 11월15일 평로를 가동 개시해 첫 해 118톤의 쇳물을 뽑아냈다.

지난 1971년 누적 쇳물 생산 100만 톤을 달성한 현대제철은 50톤과 60톤, 70톤의 전기로를 증설하며 1982년 누적 생산 500만 톤을 돌파했다. 이어 1987년 제강 누계 1000만 톤 돌파, 2001년 제강 누계 5000만 톤의 고지를 잇달아 넘었다.

90톤과 120톤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등 꾸준한 설비투자와 증설을 통해 조강능력을 크게 늘린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난해까지 9800만 톤의 제강 생산량을 기록했다. 26일 전기로 단위공장으로는 국내 최초로 1억 톤의 쇳물을 생산했다.

현대제철의 전기로 단위공장 제강 1억 톤은 국내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 쓰인 철강재가 약 20만 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지난 1956년부터 58년간 생산해 온 쇳물은 인천대교를 500개 건설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국내 최초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은 전기로 단위공장 처음으로 인천공장이 누계 1억 톤의 제강을 생산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인천공장에서 시작된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당진제철소, 순천공장 등을 차례로 확대하며 원근 日철강에서 자동차용 강판까지 생산하는 세계 최고 포트폴리오를 갖춘 철강사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dt@

사물인터넷 '우리 삶에' 들어오다

LG유플러스, 맘카 홈CCTV…보안부터 원격제어까지 '원스톱'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구석구석 고화질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LG유플러스의 '맘카 홈CCTV'가 여성 싱글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LG유플러스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가정용으로 보급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타사의 CCTV는 좁은 회전각으로 인해 제한된 방향의 모니터링만 가능하지만, '맘카 홈CCTV'는 좌우 최대 345도, 상하 최대 110도까지 넓은 회전 반경을 갖고 있다.

또 침입감지를 위해 인체 감지 센서를 추가 구매해야 하는 타사 CCTV와 달리, 인체감지 센서가 제품에 내장돼 별도의 센서장비 구매나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침입감지 알림 SMS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원격제어 기능을 통해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TV, 에어컨, 조명, 오디오 등 가전제품의 전원 온·오프, 볼륨 조절 등이 가능하다. 워키토키 기능, 긴급통화 연결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HD급 홈CCTV를 회전시켜 집안 구석구석까지 고화질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맘카 홈CCTV'가 여성 싱글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전제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외출한 경우 홈CCTV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고,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아이 돌보미와 아이의 하루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CCTV의 워키토키 기능을 활용해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서울시한부모가족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13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홈CCTV 맘카 결합상품을 3년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홈CCTV는 보안은 물론 업계 최초로 가전제어까지 가능한 홈 융합 솔루션 기반의 제품"이라며 "향후 원격제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다양한 컨버지드홈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택균기자 ktc@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대학생 창업가 설문조사

전경련이 최근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NEST) 회원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상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창업가나 창업예비 대학생들은 어렵게 제품을 만들어도 이를 판매할 유통채널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7.7%, '별로 없다'와 '거의 없다'는 37.4%, '보통'은 34.9%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창업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이 충분한 지 수치화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49.7점을 줘 국내에 창업기업 상품 유통 채널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창업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이외에 판로개척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이용시 예상되는 어려움 또는 겪었던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전체 응답자 252명 중 판로개척에 60.3%(152명)이 대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을 선택한 61.1%(154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택균기자

티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비켜"

3000여개 딜 오픈…10조 시장 진검승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는 배달앱 시장이 더욱 뜨거워진다. 국내를 대표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시장 참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기존 배달앱 3강에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올리는 티몬이 붙 만한 싸움을 펼치게 됐다.

티몬은 지역, 성별, 시즌 등 다양한 테마를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지녀 기존 배달앱의 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10조원으로, 웃어 넘기기 에는 작지 않다는 점도 흥미롭다.

티몬은 서울 전역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3000여개 업체의 배달 딜(사진)을 오픈했다.

지역 확대는 물론 쿠폰 구매 후 별도로 전화주문을 해야 했던 프로세스에서 구매와 동시에 바로 배달 주문이 접수되도록 소비자의 연계를 위한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는 주문과 동시에 결제는 물론 음식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는 배달앱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또 배달 서비스 정식 론칭을 기념해 구매자 전원에게 5% 적립금을 상시 지급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적립금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최대 15%의 티몬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까지 매일 2000원을 할인 해주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 가격 혜택을 더했다.

티몬은 더불어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익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정책을 시행한다.

요식부문의 카테고리별 분석을 통해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영세업자로 분류된 가맹점은 수수료를 일정부분 할인해준다. 티몬은 수익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자영업자와의 상생 관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수료 폭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달앱의 약점을 파고든 대목이다.

한편 배달앱은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전단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업소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정렬되는 근처 업소들을 볼 수 있게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음식 카테고리 별로 업소 리스트가 정렬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한식, 중식 등의 영역에서부터 야식, 분식, 치킨, 족발, 피자 등 상세 카테고리까지, 그것도 자신의 동네에 있는 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평가한 업소 리뷰, 현금이 없어도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바로결제 서비스 등 편의성을 높여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원' 선보여 관심

꼼꼼IT리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책을 안 읽는다. 한 달 평균 독서량은 0.8권으로 한권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등 선진국 사람들은 매주 한권 이상을 읽는다. 심지어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중국조차 2.6권의 큰 소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책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전자책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간의 다양한 전자책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종이책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책이라 해서 잘 팔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예스24가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태블릿PC를 겸한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원'을 선보인 것이다.

기본 콘셉트는 '모바일 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우선 맞춘 다음 전자책을 논하자' 정도 되겠다.

'크레마 원'은 7인치 HD IPS 터치 디스플레이(1280x800)를 탑재했다. 인터파크의 비스킷이 10인치화를 장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예스24 측은 "전자책 단말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화면이 크면 들고 다니기 불편할 뿐더러 책을 봐야할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동영상을 본다는 것이다.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2GB 램(RAM),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2 젤리빈 을 탑재하면서 329g의 가벼운 무게 등 시중에 나온 동급 태블릿PC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기기인데 동영상 좀 보면 어떤가?

그런데 크레마 원으로 다른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구글플레이 앱이 없다. 따라서 MX플레이어와 같은 영상 재생 장치를 할 수 없어 영상을 원활하게 보기 어렵다.

예스24 전용 앱이 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전자책, 독서 강연, 어린이 교육 앱 등 독서 관련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지만 구글플레이처럼 과 '영소비'를 조장하는 UI가 아니어서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제품 뒷면에 책넘김 센서를 장착해 한 손으로도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고 뒷면 하단이 가죽으로 처리되는 등 종이책 느낌이 나게 한 점도 매력적이다.

결국 크레마 원은 책을 읽는데 특화된 태블릿PC인데 이 기기를 태블릿으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지켜봐야 한다.

16GB, 32GB 두 가지 종류로 가격은 각각 21만4000원, 23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어지러운 책상 정리 한방에

공간 최적화 올인원 키보드·PC 스마트빔·외장하드도 능률 '쑥쑥'

어지러운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

쌓여가는 서류뭉치에 복잡한 선이 가득한 책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직장인들이 많다. 정리만 잘 해도 업무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IT 도우미'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키보드·마우스 하나로… 로지텍 무선 올인원 키보드 TK820

복잡한 선과 패드 등으로 책상을 어지럽히는 주범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보드에 대형 터치 패드가 내장돼 있어 마우스가 없이도 PC 작업이 가능한 디바이스다. 무선을 지원해 책상위에 꼬인 선을 보는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사무실에서도 월드컵 감상을 'SK텔레콤 스마트빔 미토'

보름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컵을 사무실에서도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소형 빔 프로젝터다. 3미터 거리만 확보하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영화, DMB 등을 100인치 화면 크기로 즐길 수 있다. 크기도 130g에 한 변의 길이가 4.6cm에 불과한 정육면체 모양이다.

◆본체가 모니터에 쏙 삼성 아티브 원5 스타일

모니터와 본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올인원 PC다. 하얀 색상에 메탈 소재의 테두리 등 디자인도 돋보여 사무실 책상 위의 여러 제품들과 어울리는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갖췄다. 게임기, 카메라와 셋톱박스 등도 쉽게 연결 할 수 있다.

◆운영체제까지 백업 새로텍 큐티 SD-25U3-6G'

두께 13.9mm의 슬림한 디자인과 195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외장하드다. 차세대 고속 인터페이스인 SATA3와 USB 3.0을 지원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운영체제까지 전부 백업할 수 있는 NTI 백업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공간활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km@

TV인터넷 관심도 아세요 줌인터넷 시청률 대체 지표

포털 줌닷컴을 서비스하는 줌인터넷이 시청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선보인다. 빅데이터 기반의 'TV 인터넷관심도'가 주인공이다.

줌인터넷은 거실 TV 중심의 현행 시청률 조사 방식 대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소비 방식과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새 지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TV 인터넷관심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http://inside.zum.com/insideZum/zum/tvtre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5월의 '외식 노하우' 이건 어때요

5월 각종 기념일 준비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고객들을 위해 외식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다음달 12일까지 '1피 3닭 페스티벌'을 벌인다. 프리미엄 피자 주문 시 신제품 '치킨 밤바라' 등 비롯해 '크리스피 치킨텐더' '갈릭&허브윙스' 등 치킨 사이드디쉬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피자는 더블크러스트 블루밍, 쉬림푸스, 지즈케이크샌드, 갈릭스테이크, 포테이토, 스위트 씨든엣지 중 5종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피자 한 판당 사이드디쉬 반값 메뉴 한 개를 구입할 수 있다.

봉고기브라더스는 프리미엄 일품요리 4종과 세트메뉴를 새롭게 출시하고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눈꽃 등심 쿠폰'을 출력하거나 캡쳐해 게시할 경우 정가 2만9900원인 눈꽃등심 1인분을 1만원에 살 수 있다.

아웃백은 이달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 고객에게 키즈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패밀리 이벤트를 선보였다. 홈페이지에서 키즈 메뉴 무료 쿠폰을 출력하거나 휴대폰으로 캡처해 사용하면 된다.

엘레나가든도 이달 말까지 샐러드 바 이용객에게 고품격 스테이크를 9900원 특가 판매하는 '가든 파티 프로모션'을 한다.

/정영일기자

재치만점 음료 광고 화제

웃음 주제 '펀(FUN) 마케팅' 속속 등장

음료업계가 여름 특수를 앞두고 벌써부터 TV 광고를 통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광고 마케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펀(FUN)과 정체성(IDENTITY)이다. 재미와 정체성을 모두 담은 광고 속 한 줄 카피는 쉽게 잊히지 않는 임팩트 덕분에 각종 패러디가 늘어날 정도로 올 여름 유통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연간 30년 넘게 50억 캔 이상 판매된 박카스는 최근 전설의 브라우사와 복극공을 등장시켜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위트 넘치는 광고를 선보였다. 주요 카피는 '전설을 맛보라'. 재치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담은 광고 카피가 인상적이다. 80년대 음료업계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압도했던 박카스의 전설을 젊은 소비자의 눈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이번 광고가 전파를 탄 후 박카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 넘게 올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 중 으뜸은 의리남 김보성의 광도 비락식혜 광고다. 이 광고에서 김보성은 연신 '으리(의리)'를 외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신토부으리', '으리진 으리음료' 등 의리를 이용한 말장난으로 만든 영상은 공개 6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200만 건을 넘어섰다. 광고 말미에서는 비락식혜를 '우리 몸에 대한 의리'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해 다시 주목 받는 '건강음료'로 인식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웅진 하늘보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열 받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공감대를 사면서 여름 시장 대열에 합류했다. 대학교 조별과제를 할 때 연애하느라 참여하지 않는 조원들 때문에 '여기도CC, 저기도CC, 이런CC들'이라며 열 받은 상황을 재미있게 그렸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하늘보리가 일상의 열과 더운 날씨의 열을 모두 식혀준다는 중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왔다 장보리' 오연서의 찰기찬 캐릭터가 잘 어우러져 재미를 더했다.

/정영일기자 nma@metroseoul.co.kr

워킹맘 위한 이유식 제품 어떤 것…

건강 재료 사용에 소포장·즉석조리로 편의성 높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육아용품시장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가사 일과 출근준비 등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하는 워킹맘들에게 제대로 된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간편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맘두베이비'(사진)는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완제품 배달 이유식과 식재료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 업계 최초로 친환경 이유식 전용 팜비트로리를 세워 대부분의 식재료를 인근에서 자란 로컬푸드로 사용한다. 당일 조리와 배송의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안전한 이유식을 제공한다. 한 끼 분으로 포장돼 데우기만 하면 아기에게 간단히 먹일 수 있다.

일동후디스의 '아기밀 유육'은 엄선한 국내산 원료를 인공첨가물 없이 맛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동결 건조해 가루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의 유아 전용 과자인 '베이비오 유기농 곡물과자'는 아기들이 먹는 과자로 7개월부터 먹을 수 있다. 아기들이 물고 빠는 시기에 입 안에 녹여 먹을 수 있는 과자 형태로 뜨거운 물과 섞으면 이유식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일 수 있다. /정영일기자

햇 옥수수 판매 이마트는 ○일부터 경남 창녕에서 올해 첫 수확한 햇 옥수수를 1개당 1490원에 전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옥수수는 7월부터 8월이 제철인 대표적인 여름 간식으로 이번에 판매하는 옥수수는 색이 노랗고 알맹이가 달콤말랑하며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이마트 제공

오비맥주, 5년째 몽골에 '카스 희망의 숲'

●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몽골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몽골 현지에서 황사예방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벌였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국제환경 NGO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판매되는 카스 제품의 판매금액 1%를 적립해 몽골 울란바토르 하이막(區) 에르덴솜(郡)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캘리포니아 아몬드協, '굿 데이 콘서트'

● 캘리포니아 아몬드협회는 아몬드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굿 데이 스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씨스타의 메인 보컬인 효린이 출연한 '굿 데이 콘서트' 1차 공연을 26일 오전 포페브서울 클럽스 프리지에서 열었다.

오는 6월 9일과 16일에 열리는 2차와 3차 공연에는 R&B의 대가 '바비킴'과 힙합 듀오 '이현원'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강강술래, '초여름 보양식품 파격 할인전'

흑임자너비아니·육포 등 최대 50%↓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건강 보양식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 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5팩 15인분)는 3만8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아미노산과 비타민E가 풍부해 두뇌 활성을 돕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피부개선 강화에 도움을 주는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팩 스무 1만8000원(50% 할인))에 판매한다.

또 통등심돈가스와 보짜몰라치즈돈가스, 찹찹한우떡갈비, 흑임자한돈너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구성된 어린이선물 세트도 3만9000원(40% 할인)에 판매하며 구매 시 버블건 장난감을 증정한다. 영양간식 쇠고기육포 6인 세트는 2만1600원, 12인 선물세트는 4만42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홈페이지(www.sullai.com)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라임나무치과병원의 '임플란트 틀니 무료 시술권', 캘러웨이 골프웨어 '의류상품권',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전 관람권', 갤럿 추천도서 '철학을 권하다'와 '긴고등어 코치 흔헬스 무작정 따라하기'를 선물로 준다.

/정영일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이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제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늦어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잦은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기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이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어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얻었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대1 수작업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올여름 샌들 트렌드, '편하고 화려하게'

인위적인 요소 줄인 천연 소재로 자연스러움 강조
굽과 스트랩 색상 조화로 세련되게… 다양한 변신

여성들은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각선미는 물론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여름철 중요 아이템으로 샌들을 꼽는다.

이번 여름에는 천연 코르크나 우드 소재, 메쉬, 꽃무늬 패턴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샌들이 트렌드를 이끌 전망이다.

또 착화감과 경량성이 뛰어난 플랫 샌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캐주얼 브랜드 로버스에서는 코르크 샌들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연 소재로 편안함과 스타일

어느 때보다도 올해 출시된 샌들을 보면 디자인과 함께 소재와 기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천연 코르크와 가죽을 주요 소재로 사용해 편안함을 높이고 샌들의 취약점이었던 착용감을 보강한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랜드로바 코르크 플랫 샌들은 쿠션감이 뛰어난 천연 코르크 몰드 창에 화사한 색상의 가죽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특히 발등에 T 스트랩이 있는 샌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메쉬 패턴으로 시원함과 화려함을

가죽을 꼬거나 엮어서 만든 메쉬 소재는 여름철 가장 주목 받는 아이템 중 하나다.

이번 시즌에 출시된 메쉬 샌들은 선명한 색상의 짜임이 특징이며 샌들 내부에 풋 베드가 있어 좋은 착화감을 제공한다.

르느와르의 메쉬 웨지 샌들은 심플한 스트랩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일으키고 여름철 어느 의상과도 함께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복고풍의 둥근 코, 다양한 색상의 메쉬짜임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굽 색상이 과하지 않게 조화를 이뤄 여름 패션과도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이다.

◆여름 굽으로 현대적인 감각 연출

웨지 샌들은 더욱 다양해진 아이템으로 세련되게 변신했다. 다만 기존의 어정쩡한 높이 대신 올해는 미들 굽에 다양한 색상과 자연 소재를 사용한 웨지 샌들이 선보이고 있다.

브루노말리에서 내놓은 웨지 샌들은 절개된 굽과 자연스러운 우드 분위기를 굽에 그대로 살려 웨지힐 특유의 무겁고 둔해 보이는 느낌을 줄인 게 특징이다.

특히 웨지힐과 스트랩의 강렬한 색상 대비가 세련된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됐다.

/김학철기자 kimc0504@metroseoul.co.kr

지칸모델 크레용팝 티바두마리치킨이 전속 홍보모델로 크레용팝을 발탁해 광고 촬영을 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제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치킨 브랜드다. 회사는 캐치프레이즈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크레용팝의 이미지가 부합한다고 판단해 크레용팝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레용팝은 이번 광고 촬영에서 특유의 밝고 귀여운 매력을 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바두마리치킨 제공

뉴스&뉴스

아리따움 28일 그룹 다이어트 캠페인

● 아리따움은 이너뷰티 브랜드인 VB솔루션 론칭에 맞춰 트레이너 간코치 최성조씨와 함께하는 아리따움 28일 그룹 다이어트 캠페인을 28일간 진행한다. 매일 퀴즈를 통해 3명에게 최성조씨의 '하루 10분 간고등어 코치 홈헬스 무작정 따라하기' 사인북을 전달한다.

올리비아로렌, 수애 여름 컬렉션 공개

● 패션기업 세정(대표 박순호)의 대표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이 전속 모델 수애와 함께 이번 여름 시즌 컬렉션을 공개했다. 여름 컬렉션은 여성스러움과 캐주얼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편안하고 기본적인 실루엣이 특징이다.

'메탈' 선글라스로 시선 모으자

레오파드 무늬에 메탈로 포인트, 얼굴형 따라 프레임 다르게

뜨거운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선글라스는 꼭 챙겨야 할 아이템이다.

선글라스는 피서지와 휴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지만 최근에는 4계절용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며 일상 생활용과 휴가용 등으로 2~3개 정도는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중 올 여름은 '메탈'이 이번 키워드의 하나로 부상하며 소비자들의 메탈선글라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여름철 화려한 포인트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레오파드(표범) 무늬에 메탈 요소가 가미된 선글라스가 제격이다.

이 선글라스는 유행을 타지 않는 무늬에 메탈로 포인트를 줘 독특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최근 편어가 착용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선글라스는 자연스러운 렌즈컬러에 브라운 계열의 레오파드가 가미돼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원한다면 현대적인 블랙 사각 프레임에 다리는 메탈 요소가 접목된 선글라스를 추천한다.

동그란 얼굴형은 사각프레임 선글라스를, 각진 얼굴형은 동그란 디자인을 선택하면 선글라스 구매 시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보잉 선글라스는 광대를 가려주기 때문에 얼굴형이 고민인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특유의 복고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얇은 블랙 프레임에 골드메탈의 조화로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보잉은 세련된 멋을 연출할 수 있어 올 여름 잇 아이템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이지룩'으로 쉽고 가볍게…

단색 상·하의 매치, 화려한 액세서리는 금물

여름으로 가는 초입, 날씨가 갑작스레 더워져 몸을 구속하는 스타일은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난다.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쉽고 가볍게 입기 좋은 이지룩은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활용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지룩을 연출할 때는 기본에 충실한 심플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선택해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연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가지가한 디자인에 돋보이는 원피스나 단색 반팔 티셔츠와 팬츠 등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 제품들이다.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원피스를 고를 때 넉넉함보다는 몸에 살짝 붙는 것을 선택해 실루엣을 강조하고 신축성이 좋은 부드러운 촉감의 면 소재를 선택하면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여름까지 대비한다면 소매가 없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옷차림이 돋보이도록 화려한 액세서리는 자제하고 심플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다. /김학철기자

누구나집

www.nuguna-house.co.kr

5월 27일(화)~28일(수)
임차인 접수

청약통장 없어도! 집이 있어도!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 집-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

인천 도화지구 4BL | 59㎡ / 74㎡ 총 520세대

문 의
032) 862-9500

(주)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이화의료원, 여성암센터-건강증진센터 2개 부문 수상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2014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의료원은 최근 서울컨벤션 얼두미나홀에서 열린 '제16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여성암센터, 건강증진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대여성암병원은 여성암 전문의 보유와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서비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는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건강 검진을 분리·독립시켜 운영한 점에서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황재용기자

'여성청결제' 의약품으로 오인

설문조사… 인식 부족 드러나

최근 여성청결제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청결제 브랜드 썸머스이브는 지난 4월 한 달간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성청결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6%가 "여성청결제는 의약품이다"라고 답해 소비자들에게 여성청결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직 여성청결제를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질세정제와 혼동하는 소비자가 많다. 질세정제는 여성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이나 하지만 여성청결제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는 바디워시, 폼클렌징과 같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약국뿐 아니라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

정기적으로 여성청결제를 이용하면 불쾌한 냄새는 물론 염증·가려움 습윤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여성이라면 생리 전후로 느껴지는 분비물 양의 증가와 불쾌한 냄새로 고생한 경험은 누구나 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레깅스와 스키니 진 등 딱 달라붙는 옷을 자주 착용함에 따라 외음부 주위가 간지럽거나 따끔거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질염을 겪는 여성도 많다. 특히 이런 증상은 여름철이 되면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여성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CNP차앤박화장품 피부 연구소 노경엄 전문의는 "그간 여성 전용 청결제가 오히려 유익균을 죽인다는 오해도 많았지만 이것은 제품에 대한 섬세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누나 바디클렌저 등으로 외음부를 씻을 경우 질의 점막을 자극하고 적정산도를 깨뜨려 질염이나 질 건조증, 외음부 염증,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극·약산성 제품 선택

여성청결제를 선택할 때는 민감한 부위니 만큼 안전하고 저자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외음부의 최적 산도인 4.5ph의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외음부가 적정산도 유지해야 자정작용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세균침입을 자연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선기자 h_une0404@metroseoul.co.kr

'물·빛·열' 피부 삼박자를 맞춰라

무더위… 수분 채우고 자외선 막고 피부 온도↓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강한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피부의 온도가 상승해 모세혈관과 모공이 확장되고 수분이 손실돼 피부가 건조함을 쉽게 느끼게 된다.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꼼꼼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보충 및 보습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분이 빠져나간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피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피부 겉은 물론 속 탄력, 속 보습 등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유한양행의 뷰티인 '아쿠아 플러스'는 100% 고순도의 국내산 히알루론산을 1병에 3600㎎ 함유한 이너뷰티 제품이다.

강한 자외선은 광(光) 노화뿐 아니라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 기미나 주근깨 등 다양한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또 햇빛이 없는 날이나 실내에서도 유리창을 뚫고 침투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을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얇게 여러 번 덧발라 주고, 가능하면 3~4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좋다. 아벤느의 '리플렉스 솔레르'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에멀전 타입 자외선 차단제로 끈적임, 백탁 현상이 없어 수시로 덧바르기 좋다.

열은 사전에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더 위험적이다. 피부 온도는 정상 온도에서 1도만 높아져도 피부 노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수시로 열 받은 피부를 빠르게 냉각시켜 피부 열 노화를 막아야 한다. 외출 중에는 쿨링 미스트를 사용해 수시로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 더샘의 '모히또 쿨링 워터 미스트'는 카리브해에서 채취한 라임수를 정제수 대신 담아 상쾌한 느낌을 주는 미스트다. /정혜인기자 hjune@

대표팀 승리기원 브라질 건강요리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The-K호텔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가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표팀의 승리를 축히 응원하기 위해 10여 브라질 건강요리를 선보이는 '2014 브라질 푸드 페스티벌'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연다. /The-K호텔서울 제공

최고급 열차와 호텔의 만남

레일크루즈 해랑·밀레니엄 서울힐튼, 여행 패키지 운영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이건태)의 레일크루즈 해랑과 밀레니엄 서울힐튼(총지배인 에릭 스완슨)이 최근 패키지 상품 출시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첫 손님을 맞이했다.

해랑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국내 유일의 호텔식 관광 전용열차다. 양사는 해랑의 1박2일 코스와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객실, 레스토랑을 결합한 8가지의 상품을 출시했다. 또 상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과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고객 만족도가 높은 패키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홍보키로 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여행의 글로벌 명품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80-850-7788 /황재용기자

뷰티업계, 남다른 水로 승부

독자적인 물로 효과 높이기

최근 프리미엄한 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세계 각국의 독특한 물을 판매하는 워터 바가 백화점과 마트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은 뷰티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정제수를 대신해 특별한 물을 담은 화장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각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물을 개발하는 이유는 특별한 영양분이 없어 인공적으로 유효성분을 추가해야 하는 정제수보다 좀 더 쉽게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모이스춰 바운드 스킨 에너지 미스트'는 경상남도 사천의 대나무 숲에서 채취한 대나무 수액과 이 수액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줄 독자적인 기술이 결합한 제품이다. 대나무 수액은 각종 미네랄과 18가지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리리코스는 동해 심층수를 사용한 '마린 하이드로 앰플'을 판매하고 있다. 동해 심층수는 다른 해수와 섞이지 않는 독성이 있어 다른 물보다 청정함을 자랑하며 특히 유해물질이 살지 못하는 최적 온도인 2℃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에서 얻은 물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해낸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 메르의 '트리트먼트 로션'은 사하라 사막에 생존하는 고대 단세포체조의 생명력을 추출한 발효 성분을 핵심원료로 하는데 전기 에너지가 포함된 디컨스트럭티드 워터가 원료의 재생 에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혜인기자

metro entertainment

"예전엔 스릴러, 지금은 휴먼"

'하이힐' 신은 남자로 돌아온 차승원

검은 피부에 부리부리한 눈과 짙은 눈썹은 배우 차승원(43)의 트레이드 마크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며 강한 인상에 억울해 하지만 이내 "코믹과 맞물릴 때 큰 재미를 준다"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의 전설적인 형사 차승원이 이번엔 영화 '하이힐'로 관객과 마주한다. 4년 만에 '하이힐'을 신은 위험한 남자 '지욱'으로 돌아왔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성 정체성 겪는 형사 지욱
축복받는 직업 종사 감사
차기작 준비 바쁜 한 해

◆ 영화 '하이힐'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남성적인 면은 부각시켜 흐보였다. 관객들이 깜짝 놀랄 거다. 원래 '12cm 위의 남자'라고 가제가 붙어 있었다. 말 그대로 높은 하이힐을 신은 위태로운 남자다.

◆ 장진 감독과는 세 번째 인연이다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2005), '아들'(2007)에 이어 세 번째다. 장진 감독과는 '박수…' 전부터 알고 지냈다. 그런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 신선함이 없다 보니 일할 땐 좋지 않았다. '하이힐' 촬영 초반에도 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 둘 다 나이 들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영화를 위해 조율됐다.

◆ 영화 속 지욱처럼 여성성을 느낄 때가 있나

있을 것이나. 장진 감독이 그 부분을 잘 파악했고 '하이힐'을 선택한 이유다. '이 사람이면 잘 만들 수 있겠다' 싶었다. 영화에선 여장이 세 번 나온다. 눈썹도 밀었다. 다시 수북해져서 다행이다.

◆ 여장 연기는 어땠나

뭔가를 만질 때 섬세하게 행동하려고 했다. 다만 여성성을 표현할 때 희화화되지 않도록 그 수위를 고민했다. '하이힐'에선 코믹 연기를 볼 수 없다. 관객들은 지욱이 처한 상황 때문에 웃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에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장을 하고 나갔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다. 엘리베이터 안에 여장을 한 지욱과 그 주민이 있다. 웃기는 상황이지만 지욱에겐 슬픔이다.

◆ 우산 액션 장면이 인상적이다

남성성을 극대화하는 데 비중을 뒀다. 훈련을 많이 했고 여러 번 찍을 정도로 욕심을 냈다. '하이힐'은 잔인한 액션으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우산을 들고 하는 액션은 조폭 2인자 허곤(오정세)이 지욱을 바라보는 모습이며 지욱을 영웅화하는 장면이다.

◆ 복근이 화제다. 관리 비결은?

식단 조절은 작품을 시작하면 한다. 주로 한식을 먹는다. 운동은 20년 동안 습관적으로 했다. 자신의 몸을 잘 알아야 한다. 얼굴에 맞는 몸 가져야 좋은 제품이지 그렇지 않으면 CG다. '너포위'에 함께 출연하는 섬지루에겐 그 몸이 어울린다. 워낙 친해서 하는 말이다. (웃음)

◆ '하이힐'과 '너포위' 모두 형사 역할이다

지욱과 서판석은 본질이 다른 형사다. 지욱은 여성성을 감추기 위해 형사를 하며, 돈 때문에 악의 무리와 타협한다. 그러나 '너포위'의 서판석은 형사가 목적인 인간적인 천구다.

◆ '하이힐'은 감성 느와르다. 차승원은 현재 어떤 장르를 살고 있나

휴먼이나. 쾌락주의자고 금욕주의자 같은 거다.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축복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

◆ 예전 장르는?

스릴러였다. (웃음)

◆ 큰 변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배우에게 변신의 짐을 과하게 준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할 거다. 과감한 변신보다는 점차 완숙하게 연기할 것이다. 정극과 희극을 오가는 배우가 되고 싶다.

◆ 올해 또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을까?

고려 중인 시나리오가 있다. 장르를 불문하고 맛깔 나는 작품을 할 거다. 드라마로 사극을 하고 싶다. 대하사극이어도 상관없다. 바쁜 한 해를 보낼 거다.

사진/황정아(더로드 미디어) 디자인/최송이

인피니트 음반시장 블루칩

음악적으로 성장통을 겪은 그룹 인피니트(사진)가 음반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부상했다.

소년에서 남자로 거듭난 인피니트가 두 번째 정규 앨범 '시즌2'로 음반 주간차트 1위를 기록했다.

26일 인피니트 소속사 측은 "지난 21일 발매된 인피니트의 '시즌 2'가 발매 5일 만에 5만장을 판매했다.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 기준으로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며 "'뉴 챌린저' '데스티니' 등이 연이어 1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인피니트의 '시즌2'에는 '추격자' '내꺼하자' 등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프로듀싱팀 스윗튠과 지난 앨범 '데스티니'를 만든 프로듀서 인피니티 '딕톡'을 쓴 작곡가 제이윤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1일 아시아 3개국에서 3D 대형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피니트는 타이틀곡 '라스트 로미오'로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유순호기자

10대 남매듀오 이어 소녀듀오

15& 첫 정규앨범…'K팝스타' 우승자 맹활약 예고

박지민과 백예린이 결성한 15&가 SBS 'K팝스타' 우승자의 인기 계보를 잇는다.

15&는 26일 첫 번째 정규 앨범 '슈가'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루 앞선 25일 SBS '인기가요'에서 컴백 무대를 열었다.

타이틀곡 '슈가'는 15&의 데뷔곡 '아이 드림'과 '섬바디'를 작곡한 심은지·디즈·앤드류 최가 공동으로 작곡한 곡. 복고풍의 편곡에 현대적이면서도 묘스러운 멜로디가 결합했다. 솔 R&B 음악을 추구하는 15& 특유의 그루브와 가창력이 돋보이며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살린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가' 뮤직비디오는 설탕가루를 사랑을 부르는 마법가루에 비유하는 등 사랑에 빠진 상태를 재미있게 표현한 두 소녀의 귀여우면서도 깜찍한 동작들로 가득차 있다. 각설탕·커피·솜사탕 등의 단어를 10대 소녀의 사랑에 비유했으며 다양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리듬을 타는 15&의 개성이 담겨 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에 이어 라이브 비디오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라이브 비디오에는 앨범 수록곡 중 '레인&크라이'를 직접 라이브로 가창한 영상이 담겨 있다. 라이브 비디오는 실제 라이브 음원으로 앨범 수록 음원과는 또 다른 15&의 가창력과 매력을 전한다.

'K팝스타 시즌1' 우승자인 박지민과 올해 18세인 동갑내기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의 백예린이 2012년 결성한 15&는 이번 정규 앨범에 2년간 성장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다. 최근 'K팝스타 시즌2' 우승자인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같은 대회 출신 10대들이 또 한번 가요계를 매섭게 강타할 지 관심이 쏠린다.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비디오는 주요 음원 사이트를 비롯해 JYP 공식 유튜브, JYP 공식 페이스북, JYP 공식 트위터에 공개됐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15& '슈가' 뮤직비디오 캡처

비스트 팀 로고 바꾸고 컴백

내달 새 앨범 내고 성숙한 이미지 변신

그룹 비스트(사진)가 팀 로고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모습을 예고했다.

비스트는 2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데뷔 이래 사용해오던 로고 이미지의 변신을 꾀한 새로운 버전의 로고를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비스트의 새로운 로고 이미지는 '비스트'라는 그룹명의 한글을 형상화한 것으로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비스트의 이미지에 신비로움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스트는 다음달 중순 여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정규 2집 '하드 투 러브, 하우 투 러브'로 각종 음악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음악 차트 1위를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던 비스트는 새 앨범에서 한층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비스트는 그 동안 해외공연, 솔로 및 유닛 활동, 드라마·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멤버 개별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유순호기자 yuns@

비스트 로고

AOA 걸그룹 대세 굳히기

내달 복귀… '짧은 치마' 인기 잇는다

AOA(사진)가 걸그룹 대세 굳히기에 나선다.

AOA는 다음달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올해 1월 발표한 '짧은 치마'로 데뷔 1년 6개월 만에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던 이들은 5개월 만에 다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활동하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월 남성그룹 씨엔블루의 앨범을 낸 데 이어 다른 가수들을 제치고 또 한 번 AOA를 선택함으로써 가요계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AOA는 밴드와 댄스를 섭렵하는 유일한 걸그룹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아 왔다. 2012년 7월 발표한 데뷔곡 '엘비스'를 비롯해 '겟 아웃' '모아' '흔들려' '짧은 치마' 등 AOA만의 색깔이 뚜렷한 음악들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유순호기자

보이스피싱 실체 영화로

국내 총책 하루 1억4000만원 수익 참회하려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

"당신 자녀가 납치됐다."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자녀를 납치했다며 학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유출 범죄 공조 수사를 위한 '한·중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며 금융범죄 근절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한 해 20여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임자였던 이기동(32·사진)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 '보이스피싱(가제)'이 제작단계에 들어가 화제다. 영화 '보이스피싱(가제)'은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잔혹사' 등을 히트시킨 제작자 로드픽처스 최선중 대표와 이기동씨가 손잡고 제작에 들어갔다.

영화의 원작이 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검은 커넥션' 책을 출간한 이기동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이스피싱 한국 대포통장 총책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하루 1억40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겼다. 누구도 상상치 못할 엄청난 금액이다.

그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뉴스에서 보면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다.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다"고 털어놨다.

그는 2000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참회했다. 당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일기 형식으로 쓴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소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검은 커넥션'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 실제 재발을 피해가는 방법 등은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고 교묘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금융범죄를 차단하려면 범죄자를 잡기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사라지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이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이나 어른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범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만 알려주면 범죄는 급격히 줄어들겁니다."

18세 때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중 27세에 보이스피싱에 발을 들인 그는 조직원 6명을 두고 2년여 만에 50억원 이상 벌었다. 아직도 그를 향한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사실 주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범죄자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고 진실은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상윤기자 ysw@metroseoul.co.kr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엑스맨' 주말 극장가 장악

'인간중독' 제치고 23~25일 146만 관객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물 '엑스맨'의 신작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이하 '엑스맨')가 주말 극장가를 장악했다.

2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2일 개봉한 '엑스맨'은 23~25일 3일간 146만1604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74만5906명이다.

이 영화는 사상 최강의 적이자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 센티널에 맞서기 위해 엑스맨들이 모두 모여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SF 블록버스터다.

역대 엑스맨이 총출동하고 기존 시리즈를 탄생시킨 제작진이 다시 뭉쳐 화려한 특수 효과와 대규모 액션신을 선보여 개봉 전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던 송승헌 주연의 19금 멜로 영화 '인간중독'은 23만1510명(누적 관객 수 113만5553명)을 기록해 2위로 밀려났다. 이어 '표적' '트랜센던스' '고질라'가 3~5위를 차지했다.

한편 다음달 26일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 7월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 개봉함에 따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물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

송강호·유아인·문근영 뭉친다

이준익 감독 영화 '사도' 초호화 캐스팅

톱스타 송강호·유아인·문근영이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 8일간의 기억'(이하 '사도')에서 뭉친다.

조선시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재조명한 '사도'가 송강호·유아인·문근영·김해숙·박원상·전혜진의 캐스팅을 확정지었다.

송강호는 갖은 역경을 통고 왕위에 올랐지만 자식을 뒤주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영조로 분한다. 지난해 영화 '변호인'에서 실제자 남궁민수를, '관상'에서 관상쟁이 내경을, 그리고 '변호인'에서 인권변호사를 연기하며 3000만여 명의 관객을 웃고 울렸기에 이번 변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JTBC '밀회'에서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를 연기해 깊은 인상을 남긴 유아인은 8일간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은 비운의 사도세자를 연기한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는 문근영이 결정됐다. 그는 2006년 영화 '사랑따윈 필요없어' 이후 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이자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의정 홍봉한 역에는 박원상이 캐스팅됐다. 인원왕후 역은 김해숙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역은 전혜진이 맡았다.

배급사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는 "올 여름 크랭크인 예정인 '사도'는 이준익 감독이 2005년 개봉한 '왕의 남자' 이후 오랫동안 고민했던 소재다. 지난해 12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 단숨에 완성한 작품"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은 현기자

신민아 "귀 한번 만져도 될까요"

'경주' B컷 포스터 아룻

박해일·신민아 주연의 영화 '경주'의 B컷 포스터가 공개됐다.

'경주'는 경주에서 시작된 수상하면서도 가슴 두근거리는 만남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B컷 포스터는 박해일의 귀를 만지는 신민아의 독특한 스킨십을 담아 호기심을 자극한다.

경주의 찻집 아리솔에 도착한 최현(박해일)은 대뜸 '춘화'의 행방부터 묻는 수상한 행동으로 미모의 찻집 주인 공윤희(신민아)에게 변태(?)로 오해 받는다. 하지만 최현의 순수한 매력을 발견한 윤희는 차츰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계모임으로 그를 초대한다. 계모임이 끝난 늦은 밤, 충동적으로 경주에 온 탓에 머물 곳을 마련하지 못한 최현에게 윤희는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제안한다.

B컷 포스터는 단둘만 있는 집에서 최현을 향해 "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라는 은밀하면서도 가슴 두근거리는 부탁을 하는 윤희의 모습으로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주'는 다음달 12일 개봉한다.

/이은 현기자

2013 KCON 엠카운트다운

2013 KCON 컨벤션

한류 페스티벌 북미 여름 달군다

8월 9~10일 KCON 2014 개최
콘서트서 산업부문 까지 망라

이번 여름 북미 최대 K-컬처(Korean Culture) 페스티벌 KCON 2014 (이하 '케이콘 2014')가 오는 8월 9~10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케이콘'은 K-팝 콘서트는 물론 식품·패션 뷰티 자동차 IT 등 산업 부문 컨벤션까지 결합된 대형 한류 축제다. 지난해 총 2만여 명의 현지 관람을 모았던 이 축제의 올 목표는 4만 명이다. 현지인들에게 K-팝 영화 드라마 패션·뷰티·음식 등 한류문화와 그와 관련된 산업 제품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특히 '케이콘 2014'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을 잡고 컨벤션 부스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케이콘 2014' 참여를 지원해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진흥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류의 핵인 K-팝 콘서트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 한 차례만 열렸던 '엠카운트다운' 콘서트는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내내 열릴 전망이다. 이번 '엠카운트다운' 콘서트에는 소녀시대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다수 출연하며 공연 실황은 UHD로 제작된다.

2013 KCON 겟잇뷰티 부스

2013 KCON 커버댄스

또 K-팝 스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팬 미팅 개최는 물론 지난해 호평을 받은 한식 쿠킹 클래스, K-팝 커버댄스 워크숍 등 팬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계자는 "'케이콘 2014'는 단순한 한류 이벤트를 넘어서 음악 영화 음식·패션 등 한류 문화와 파생 산업을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이자 한류 콘텐츠 수출과 창조경제를 이끌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정일우 '야경꾼일지' 캐스팅

'해품달' 이어 2년 만에 MBC 사극 등장

배우 정일우(사진)가 MBC 새 월화극 '야경꾼일지'에 캐스팅됐다.

오는 7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야경꾼일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에 순찰을 돌며 귀신을 잡던 별범 순찰대 야경꾼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정일우는 극중 주인공 이린 역을 맡아 훤칠한 외모에 두와 명예까지 거졌지만 내면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해 불량왕자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어느 날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겨 야경꾼이 된 이린은 귀신을 퇴치하고 백성의 희노애락을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왕자로 거듭난다.

정일우는 "지금껏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야경꾼'이라는 설정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처음 접하게 된 캐릭터라 긴장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에릭 '연애의 발견' 주연

정유미와 7년 만에 재회

가수 겸 배우 에릭(사진)이 KBS2 새 월화극 '연애의 발견' 남자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KBS2 '스파이명월'(2011) 이후 3년 만이다.

에릭은 '연애의 발견'에서 강태하 역을 맡았다. 강태하는 완벽한 외모와 인테리어 전문업체 대표다. 일과 연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다. 헤어진 옛 애인과 재회한 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캐릭터다.

여자 주인공인 정유미와는 7년 만에 재회한다. 두 사람은 MBC 드라마 '케세라세라'(2007)에서 함께 연기했다.

에릭의 소속사 E&J엔터테인먼트의 이종민 대표는 "에릭이 강태하를 완벽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연애의 발견'은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1, 2, 3'을 집필한 작가 정현정의 차기 작이다. 연애 중인 여주인공 앞에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나타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지현우 정은지 주연의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후속으로 8월 방영될 예정이다. /정효진기자 [illegible]

발라드 콘서트 '더 보이스' 연다

4명의 남성 대표 발라드 가수들이 도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감성 콘서트를 마련한다.

유종신 김범수(오른쪽 사진) 휘성(왼쪽) 신용재는 다음달 6~8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합동 콘서트 '더 보이스'를 개최한다. 삼성카드가 2011년 이후 문화 공연 콘텐츠로 기획하는 삼성카드 셀렉트의 22번째 공연이다. 서울 공연에 이어 다음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도 공연이 열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국민에게 힐링을 주제로 한 공연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4명의 특색 있는 힐링 보이스를 통해 지친 도시인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metro HongKong

「14520」空中

metro France

iversitaire 100% écolo

목조로 지은 친환경 기숙사

남프랑스 니스에 친환경 대학 기숙사가 생긴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커지 호이에는 목조로 된 신개념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는 니스 공대 인근에 만들어질 계획이다. 200여 개의 방이 있으며 샤워실, 화장실, 부엌이 모두 들어가 있는 구조다. 기숙사 건설은 2015년 1월부터 시작된다. 건축 비용엔 총 1100만 유로(약 160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metro Brazil

열대기후 남미에 우박 쏟아져

무더운 남미에도 눈이 내린다?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루가 이상기후로 때 아닌 우박을 경험했다. 폭발의 일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박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피해가 잇따랐다. 92대의 트럭을 동원해 총 310t의 얼음 덩어리를 치우는 등 청소부들이 과외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하늘 위 '비행기 결혼식' 화제

프러포즈 동영상 콘테스트 우승··'영원한 사랑' 뜻하는 5월 20일에 예식

최근 프러포즈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홍콩 연인이 '비행기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신랑 펑상쥔(30)과 의류 판매원인 신부 쑤샤오단(26) 두 사람은 원래 올해 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초에 친구의 제안으로 홍콩계 항공사인 홍콩익스프레스에서 주최하는 '프러포즈 동영상 콘테스트'에 프러포즈 영상을 제출하게 됐다. 네티즌의 온라인 투표 결과 두 사람의 동영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커플은 결국 하늘 위에서 결혼식을 올릴 행운의 기회를 잡았다.

펑상쥔과 쑤샤오단은 5년 6개월 전 친구가 연 파티에서 처음 만나 반 년 뒤에 교제를 시작했다.

쑤샤오단은 "펑상쥔은 평소에도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한다. 나를 위한 영상을 제작해 깜짝 선물로 준다"고 말했다.

펑상쥔은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몰래 영화관을 빌려 가족과 친구 30여 명을 초대하고 쑤샤오단에게 청혼을 했다. 쑤샤오단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이다. 쑤샤오단은 "영화가 끝나고 스크린에서 펑상쥔이 찍은 프러포즈 영상이 나왔다. 화면에는 우리 가족들이 등장했다. 이어 그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두 사람은 이 동영상 덕분에 비행기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감격했다.

커플은 지난 19일 홍콩에서 수속을 마친 뒤 20일 오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공항에 나타났다. 푸켓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가족, 친구와 일반 승객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펑상쥔은 "아내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영원히 널 사랑해'라는 문장의 중국어 발음은 '이스워아이니'로 숫자 '14520'의 중국어 발음 '이쓰우얼링'과 비슷하다. 두 사람이 결혼식 날짜를 5월 20일로 잡은 이유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커플들도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날 백년가약을 맺었다. 화요일이지만 지난 20일 결혼식이 많이 열려 예식 업체들은 평소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Peru

"No haré un reality so mi orientacion sexual"

"나도 동성애자다" 국회의원 커밍아웃

"사실 나도 게이입니다."

페루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근 인터뷰 도중 '커밍 아웃'(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일)을 해 페루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국회의원 카를로스 브루스는 현지 일간 '엘 코메르시오'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게이임을 밝히며 그가 발의한 '동성애자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루스 의원은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또한 내가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법은 페루 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든 모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루에서 현직 의원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기 있는 그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다.

소식을 접한 배우 크리스티안 마이에르와 칼럼니스트 필립 버터스는 브루스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또 언론인 베토 오르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브루스 의원을 '진실에 된 연말 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모두가 브루스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브루스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동료 국회의원 마르타 차베스는 트위터에 "브루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이 장면까지 계산해서 고려했을 것"이라고 썼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 '우리는 페루'의 단장 페르난도 안드라데도 "많은 국민이 그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내일 저녁 미리보는 월드컵 본선

국내 마지막 경기 튀니지전서 베스트11 윤곽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태극전사의 베스트 11이 튀니지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윤곽을 드러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평가전을 치른다. 30일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을 거쳐 결전의 땅 브라질에 도착하는 대표팀은 이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의 함께 출정식을 한다.

12부터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소집훈련을 해 온 대표팀은 이날 경기에서 훈련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사실상 브라질에서 활약할 베스트 11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한 차례 베스트 멤버를 시험했던 터라 선발 출전 선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당시 그리스전에 발탁됐던 23명의 선수 중 18명이 월드컵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8명 중 15명이 그리스 평가전에 나서 2-0 승리를 합작한 바 있다.

4-2-3-1 전술을 구사하는 대표팀은 원톱 스트라이커로 볼와의작업에서 완치된 박주영(아스널)을 기용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슈팅 감각을 끌어올리며 골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 섀도 스트라이커는 구자철(마인츠), 좌우 날개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맡는 것이 유력하다.

중앙 미드필더는 홍 감독이 최상의 조합으로 생각하는 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맡을 예정이다.

포백라인은 확실한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다. 왼쪽 풀백은 진단됐던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재활훈련을 하고 있어서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속팀 일정으로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윤석영(QPR)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따라서 윤석영-김영권(광저우 헝다)-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이용(울산)이 포백라인을 구축한다. 골키퍼로는 정성룡(수원)이 나선다.

튀니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가 한국보다 6계단 높은 49위로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3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아프리카의 강호다. 이번 대회 최종예선에서는 카메룬에 패해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홍 감독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평가전인 만큼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떠나겠다"며 튀니지전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

/윤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삼성 야구가 찾은 해답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무엇이었던가? 삼성 비서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광주까지 내려와서 해태가 강한지 노하우를 묻었다. 그들의 정성 때문에 그 때 4시간 동안 내가 아는 것은 아낌 없이 말해주었다."

최윤범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의 기억이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삼성은 리그 최강이었지만 한국시리즈는 취약이었다. 잦은 감독 교체, 모래알 팀워크라는 오명을 들었고 93년 이후 7년 동안 한국시리즈 문턱도 밟지 못했다. 삼성은 벤치마킹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삼성은 최강의 야구단이 되었다. 80~90년대를 지배했던 해태, 해태 이후 판도를 좌우했던 현대와 SK를 잇는 '강자의 전설'을 쓰고 있다. 작년까지 한국시리즈 3연패를 달성하더니 최근 11연승의 기세를 올리며 4연패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삼성 야구는 빈틈이 없다. 선발진과 중간진, 소방수까지 마운드가 가장 탄탄하다. 강력한 타선과 수비력까지 더해있다. 위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만큼 선수들은 자신감과 창조성이 넘치는 플레이를 한다. 전형적인 강자의 모습이다.

이처럼 강한 전력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상선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여기에 부상 예방에 초점을 맞춘 트레이닝 시스템도 완벽하다. 설령 부상한 선수가 나와도 완벽한 재활로 이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선수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신뢰 관계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면서 어느새 경쟁자로 성장한다. 잠원상 이후 FA 영입을 하지 않으면서 육성체계도 뿌리를 내렸다. 80~90년대와 완전히 다른 삼성만의 야구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삼성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OSEN 야구전문기자

성적 좋으면 도핑테스트 준비하라

임창용·민병헌 등 상대팀 요구로 검사받아

"도핑 테스트 준비해야겠네."

올시즌 프로야구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이 성적만큼 도핑 테스트의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움을 받아 각 구장을 돌며 불시에 금지약물 검사(도핑 테스트)를 했다. 검사의 대상이 된 경기에서 팀별 5명 중 10명이 도핑 테스트 대상자가 되는 건 지난해와 다름이 없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 대상자를 고르는 방법이 바뀌면서 최근 맹활약하는 선수 대부분이 도핑 테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까지는 KBO가 최근 성적이 향상된 3명의 선수를 지목하고, 무작위로 2명을 추첨해 도핑 테스트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5명 전원을 상대팀이 고르게 했다.

26일 현재 타율 0.385로 타격 3위를 달리는 두산 베어스 외야수 민병헌(27)은 최근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또 개인 첫 3경기 연속 홈런(21일 넥센 히어로즈전~23일 두산전)과 4경기 연속 타점(21일 넥센전~24일 두산전), 5경기 연속 안타(21일 넥센전~25일 두산전) 등 생애 첫 기록을 쏟아낸 한화 포수 정범모(27)도 프로입단 후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6시즌을 뛰고 한국으로 돌아와 14경기서 2승 10세이브 평균자책점 1.20으로 맹활약 중인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임창용(38)도 도핑 테스트 대상자로 지목됐다.

최근 맹활약하는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가장 많이 듣는 농담은 "도핑 테스트 준비해야겠네"다.

/김성호기자 ysk@

조시 베켓 생애 첫 노히트노런

LA다저스 23타자 연속 범타처리 완벽투

류현진(27)의 팀 동료 조시 베켓(34·사진)이 생애 첫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다.

LA 다저스의 오른손 투수 조시 베켓이 자신의 생애 처음이자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첫 노히트노런을 달성했다. 베켓은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9이닝을 혼자 책임지면서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 다저스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128개의 공을 던진 베켓은 9회말 2사에서 지미 롤린스를 볼넷으로 출루시키기 전까지 2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는 완벽한 투구로 노히트노런의 위업을 이뤘다. 볼넷은 3개를 내줬고, 삼진은 6개를 잡았다.

/장윤희기자

우리가 트렌드다

박상찬의 **트렌드읽기**

동네가 변화하고 있다.

명동, 압구정동, 청담동으로 대변되던 과거 한국의 핫플레이스는 뭔가 새롭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트렌드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언제나 낯선 공간이었다. 그들만의 색깔이 넘치는 이면에는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이 존재했다. 그 속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 언제나 물 건너 들어온 것이어야 했으며, 우리 것에 대해 무관심했고, 우리 것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도 소위 '트렌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작은 골목길에 가난하고 젊은 감성의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빈 벽에 벽화를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모여 동네 동네마다 각양각색의 색과 장소, 그리고 소규모의 맛집들이 모여들어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곳들은 단순히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곳이 아니다. 공간의 창조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가감 없는 익숙한 색채와 감성으로 대중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문화가 잉태하는 곳으로 자리 잡아가게 됐다.

이제는 자본의 힘에 눌려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삼청동과 가로수길의 지금이 그러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골목길 동네가 이제 서울 이곳 저곳에 생겨나고 있다. 북촌에서 서촌으로, 홍대에서 시작해 연남동, 상수동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도 많은 골목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트렌드의 발신지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세계화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속도와 경쟁이라는 신자본주의의 빈 껍질만 가득히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자신들의 내부, 그리고 자신들의 주변으로부터 다시 채워나가고 있다.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스스로가 트렌드다.

/인터비젼플러스(www.ivp.co.kr) 대표

날씨

5/27 火 일출시각 05:15 일몰시각 19:4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9.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부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복식호흡, 팽상, 스트레칭 등 미리 준비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둥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5		4			2	
	7	8			2	9	6	
			4			8		
	6		3	7	5		1	
		3			1			
	8	7	2			3	5	
	1			5		7	4	
					3		8	

		9	3		2		7	
				1			9	
		4			8	2	3	
1			4			8		3
			1	7	5			
2		5			3			1
	2	3	5			9		
	5			9				
	7		2		6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브레인스 / 한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기묘)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세 주고있는 집 팔아야하나 현시점 매매는 성립 안될듯

형 운마 가득 여자 87년 5월 2일 음력 저녁 8시 경

Q 3년전에 집을 구입해서 세를 주고 있어요. 월세와 전세는 현재 집으로 이사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세를 주거고요. 50세 이후부터는 운이 풀린다는데 그때까지 뭐해야하는지 2~3년후 뭐 하는 게 나을지 꼭 답변주세요.

A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사람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귀하는 정지(정재)에 장생궁(長生)을 갖 태어나 성장할 시작하는 길운을 놓고 있으며 월덕귀인(月德貴人)의 귀성이라 어려움이 있어도 흉함을 제압하는 좋은 사주입니다만 관인(官印)이 나를 챙겨 주는모뎀과 비견(比肩) 나와동급의 오행이 강성한 결합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면도 없습니다. 2016년 부터 서서히 문서운이 들어오기에 현재 시점의 매매는 내 뜻대로 성립되지 않는 운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혼인데 아기는 언제 생길까 굳이 계획이나 가릴 필요없어

단수실임★★ 여자 83년 2월 13일 새벽 4시 15분 / 남자 80년 5월 31일 오후 7시 경

Q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기를 언제쯤 계획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투자 기회가 몇 번 생겼는데 불안해서 그냥 놓치게 됩니다.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확인 좀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사주 같은 거 보고 싶습니다.

A 파도의 연속이 인생살이랍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와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자식걱정과 재물걱정입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운을 믿지 말고 노력을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주팔자의 오묘한 이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됨을 알고 다이아몬드와 돌덩이를 잘 해야 합니다. 37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들어와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부부에도 좋은 편이다 무엇보다 좋은 아기를 바라면서 임신을 위한 태교를 권합니다. 신장과 부인질환 특히 발목을 삐긋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7일 화(4월 2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내 뜻을 남에게 강요 말라. 60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72년생 휴분하여 상사에 결례 않도록 조심~ 84년생 대타로 나섰다가 행운을 잡는다.

소 49년생 배우자와 함께 즐겁다. 61년생 고지식한 배우자 때문에 답답~ 73년생 과식이 지나치면 중요한 것 놓친다. 85년생 프러포즈 받으면 마음의 문 열어라.

호랑이 50년생 돈 버는 기계라는 슬픈 자화상에 우울~ 62년생 서두르면 실수 부른다. 74년생 동료와 다투는 일은 피할 것. 86년생 고통도 지나치면 없던 고민 만든다.

토끼 51년생 자녀대학은 빠를수록 좋다. 63년생 직장인은 책임질 일은 미루지 말라. 75년생 울고 나갔다 웃고 돌아오는 격이다. 87년생 상사의 의중을 잘 파악할 것.

용 52년생 취업이 희소식 기대하라. 64년생 지지부진하던 일에 속도가 붙는다. 76년생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라. 88년생 의로운 일이 빛해져 박수가 쏟아진다.

뱀 53년생 큰일기면 소망은 이룬다. 65년생 불쌍사나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77년생 고민은 엉뚱한 사람이 해결해준다. 89년생 혼자 앞서가지 말고 함께 가라.

말 42년생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것. 54년생 넓은 관점서 봐야 손해가 없다. 6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꼭 잡아라. 78년생 처음 시작한 일은 성공을 거둔다.

양 43년생 생각도 못한 벗이 찾아온다. 55년생 동료와 이득 나눌 수 있어 뿌듯한 하루~ 67년생 작은 것 버리면 큰 것 얻는다. 79년생 놀림 받더라도 소신 지켜라.

원숭이 44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6년생 때맞춰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생 조직이 필요할 때 존재감 보여주라. 80년생 생각도 못한 친구가 못게 만든다.

닭 45년생 두 얼굴의 배우자가 될 수다. 57년생 반짝 인기이다 자만하지 말라. 69년생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이롭다. 81년생 안 되는 일은 없으니 최선 다하라.

개 46년생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 58년생 욕심 부리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70년생 일감이 늘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 82년생 금전문제 고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고난의 행군은 바닥 쳤다. 59년생 지나간 일은 훌훌 잊어라. 71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오는 격이다. 83년생 하기 싫은 일이라고 피하지 말라.